

주간 테러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'22. 7. 22(금)

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유럽

○ 英 의회, 국내 극우 테러리즘 위협 증가 경고

- 7.13 英 의회 정보·보안위원회(ISC)는 「극우 테러리즘」 題下 보고서에서 자국 內 극우 테러 위협이 증가 중임을 지적하며, 특히 기존 채용 절차를 통해 극단주의자들의 軍·警 잠입 차단이 어렵다는 점을 경고

○ 유로폴, EU 內 反정부 극단주의 위협 부상 우려

- 7.13 유로폴 「카트린」 사무총장은 SNS를 중심으로 反정부 음모론과 가짜뉴스들이 확산되고 극단적인 폭력으로 표출되고 있으며, 특히 정치인과 정부인사들이 反정부 세력의 테러목표가 되고 있다고 우려
- * 또한,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가 EU 안보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부연

○ EU, PKK(쿠르드노동자당) 등 21개 테러단체 제재 연장

- 7.19 유럽연합 이사회(Council of the European Union)는 성명을 통해 PKK·인민혁명해방군(DHKP-C) 등 기존 테러조직으로 지정한 21개 단체에 대해 6개월간 제재를 연장한다고 발표
- * 同 제재는 EU 內 자금과 금융자산을 동결하고 경제적 자원 이용을 금지

미 주

○ 美 「바이든」 대통령, 이란 혁명수비대 테러조직 유지 입장 고수

- 7.13 이스라엘을 방문한 美 「바이든」 대통령은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이란 혁명수비대를 미국의 해외 테러조직 명단에 계속 포함할 것이며, 이란의 핵무기 보유 저지를 위해 무력 사용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언급
- * 언론은 「바이든」 대통령이 물가안정을 위해 사우디와의 관계 개선을 모색 중인 가운데 사우디와 이란이 상호 적대관계에 있는 점을 의식한 발언으로 분석

- 美, 이란 정부 「솔레이마니」 복수 차원 '요인 암살' 가능성 경고
 - 7.15 언론은 美 국가대테러센터(NCTC) 보고서를 인용, 이란이 '20.1월 미국의 무인기 공습으로 사망한 「솔레이마니」의 복수를 위해 美 전·현직 요인* 암살 등 다양한 작전을 시도할 위험이 있다고 보도
 - * 「트럼프」前 대통령, 「폼페이오」前 국무장관, 「매켄지」前 중부사령관 등 포함

아 · 태평양

- 태국, '폐가수스'* 활용 反체제인사 스마트폰 감시 의혹 제기
 - 7.18 캐나다 사이버보안연구소 및 태국 NGO '아이로'(iLaw)는 태국의 反정부 시위·운동 관련 학자·변호사 등 최소 30명이 스마트폰 해킹 스파이웨어 '폐가수스'로 감시받았으며 태국 정부의 배후 가능성 제기
 - * 이스라엘 보안기업(NSO)이 수사·정보기관의 범죄자 추적용으로 개발하였으나, 일부 국가에서 정치·언론인 휴대전화 감청 등에 악용된다는 의혹이 지속 제기
- 인천공항, 안티드론 시스템 '고도화' 추진
 - 7.17 인천공항은 불법 드론 차단을 위해 지난 '20년 구축한 안티드론 시스템의 △카메라 성능 강화(일반화질→고성능 주·야간 카메라), △불법 드론 자동탐지 설비·기능 추가 등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할 예정
 - * 또한, 전파법·공항시설법 개정에 맞춰 전파방해 장치(JAMMING) 및 조종 권한을 박탈하는 스푸핑(SPOOFING) 장치 도입도 적극 검토할 계획

아프리카

- 美, 소말리아 알샤바브 겨냥 공습 감행
 - 7.19 美 국방부는 자국 아프리카사령부(AFRICOM)와 소말리아 정부가 공조하여 소말리아 남부 주바랜드州에서 활동 중인 알샤바브 조직원 대상 공습을 감행하여 2명을 사살했으며, 민간인 피해는 없었다고 발표
 - * 同 공습은 美 「바이든」대통령이 지시한 소말리아 미군 再파병('22.5)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주요 작전으로 평가

이라크 키르쿠크 연쇄 자살폭탄 테러

- '07.7.16, 이라크 북동부 키르쿠크 지역에서 「잘랄 탈라바니」 대통령의 소속 정당인 '쿠르드애국동맹(PUK)' 본부 건물 겨냥 자살폭탄 공격 등 3차례 폭탄 테러가 발생, 80여명이 사망하고 180여명 부상
 - 당시 테러범은 폭탄을 가득 실은 트럭을 몰고 돌진해 경계망을 뚫은 뒤 쿠르드애국동맹(PUK) 당사의 방호벽 부근에서 폭발 자행, 주변 건물 여러채와 인근 운행 버스 등을 파괴
 - 이후 키르쿠크의 다른 2곳에서도 폭탄이 장착된 차량이 폭발해 경찰관 1명이 사망하고 다수가 부상
- 同 지역은 그간 상대적으로 치안이 안정되었지만, 석유수입법안 제정을 앞두고 북부 핵심 유전지대를 둘러싼 쿠르드족과 아랍계, 터키계 주민의 대립이 심화되면서 쿠르드족을 겨냥한 테러가 빈발
 - * 지난 7.7에도 同 지역에서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, 150여명 사망·250여명 부상
- 사건 직후 배후를 자처한 세력은 없으나, 미국과 이라크 정부는 바그다드 소탕작전을 피해 도주한 알카에다 잔당의 공격으로 분석
 - * 「자말 타히르」 키르쿠크 경찰국장은 “바쿠바 일대에서 전개된 미군 주도의 군사작전으로 쫓겨난 알카에다 잔당들이 주변 도시들로 몰려들고 있다”고 발표

테러 상식

< 알-카에다(AQ) >

- (목표·결성) 전세계 이슬람 원리주의 확산 및 神政국가 건설을 목표로 「오사마 빈라덴」이 아프가니스탄에서 활동하던 각국 對소련 항쟁 참전자들을 규합해 '88년 결성
 - * 테러단체 지정 : UN('10.10), 미국('99.10), 캐나다('02.7), 영국·호주·인도·러시아 등
- (연계세력) 탈레반, 알카에다 마그레브 지부(AQIM), 예멘 알카에다(AQAP), 하야트 타흐리르 알 샴(HTS), 이슬람·무슬림 지지그룹(JNIM) 등
- (활동지역) 아프가니스탄·파키스탄 접경지역
- (주요테러) '19.7 소말리아 남부 항구도시 키스마유 호텔 폭탄테러(사망 26명, 부상 56명)
'05.7 영국 런던 지하철과 버스 연쇄 폭탄테러(사망 56명, 부상 770명)
'01.9 美 항공기 4대를 납치, 뉴욕 등에서 공중 충돌 테러(사망 2,996명)